

INTERNI

& Decor



2022 MAISON&OBJET PARIS

2022 욕실 스타일링 경향

2022 페인트 & 특수마감재 제품 경향

MAY. 2022



우수콘텐츠잡지
2022

건강한 삶의 즐거운 시작, 병원

Take Care of My Life

건강한 삶의 즐거운 시작, 병원

취재 한성옥, 최지은, 이상진

즐겁고 활기찬 인생은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한다. 몸이 튼튼하고 기운이 있어야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꿈을 좇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최고의 관심사가 된 시대, 병원은 예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신선한 풍경으로 건강한 삶의 길을 연다.

인류는 언제나 건강을 꿈꾸지만 요즘처럼 건강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화두였던 적도 드물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던 젊은 세대가 감염병과 고령화 사회 등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건강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수명 연장을 추구하는 단계를 넘어 건강을 지키는 일을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인지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양상이 나타나 흥미로운데, 식단을 관리하면서 대체 성분이 들어간 음식으로 맛과 영양소를 모두 충족하고 요가, 헬스부터 등산, 골프까지 다양한 운동을 취미로 삼으며 귀여운 굿즈를 제공하는 이벤트 러닝을 하거나 게임처럼 주행에 따라 가상의 보물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이클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건강 관리에 새로운 흐름이 일면서 병원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단이나 운동 같은 일상 속 관리만큼이나 병원을 찾아가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제때 치료하는 일이 중요하다. 흔히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 체질이던 사람의 수명이 오히려 짧다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잔병 때문에 자주 병원에 드나들면 자연히 신체를 관리하게 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은 필요성을 알면서도 선뜻 찾기 힘든 장소다. 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큰 데다 치료와 관리의 효율성, 위생 등에만 초점을 맞춘 병원의 모습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입원 환자 역시 희고 반듯하지만 한 공간에서 압박감과 긴장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존의 모습을 탈피해 즐거운 장소로 거듭나는 병원이 나타나는데, 감각적인 카페나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공간, 집처럼 안락한 공간을 조성해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다양한 조형 요소, 비비드 컬러를 활용한 인테리어로 병원의 이미지를 활기차고 발랄하게 환기한다. 더 나아가 공간 디자인이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자연, 예술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순히 시선을 사로잡는 풍경이 아니라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병원을 제안하기도 한다. 근사한 카페에서 여유를 누리는 듯한 공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울창한 수풀 속에서 휴양을 하는 공간. 새로운 공간 경험을 입어 한 번쯤 찾아가고 싶은 장소가 된 병원에서 건강한 삶을 향한 즐거운 여정을 시작한다.



발길을 끌어당기는 다채로운 풍경

Isabel Cadroy, Children's Dentistry

Design / vitale

Architect / FONT Arquitect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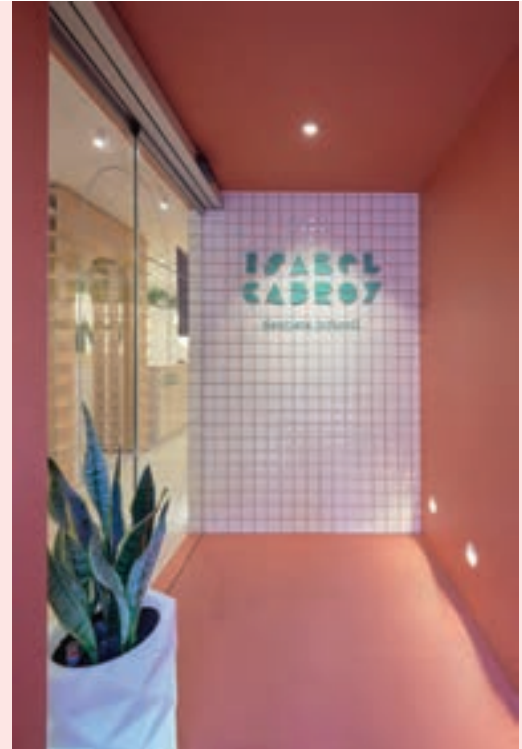
Location / Castellon, Spain

Area / 350m²

Photograph / Santiago Martín, Hilke Sievers



파사드의 아치, 격자 등 기하학 도형이 병원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



병원은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장소인 만큼 늘 긴장감을 안겨준다. 특히 통증이 낫선 어린아이들은 병원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딱하고 어색한 환경에서 차가운 청진기의 감촉과 귀를 울리는 기계 소리 등이 두려움을 증폭하기도 한다. 이에 아이들을 진료하는 병원은 발랄하고 친근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만화 같은 다채로운 컬러로 공간을 아우르거나 끌어안을 수 있는 귀여운 인형을 두고 놀이 공간을 별도로 할애하며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다.

스페인의 소아 치과 의원 Isabel Cadroy, Children's Dentistry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코랄, 그린, 레몬 등 밝은 색과 인지 발달 학습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기하학 도형을 활용해 긍정적이고 친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원, 삼각, 사각, 아치 등을 곳곳에 녹였는데 퍼즐판 같은 벽과 나무 블록 아치, 박공지붕 모양 통로와 모빌을 닮은 조명 등으로 실내 놀이터처럼 연출해 아이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병원은 두 층으로 구성되며 치료 공간은 지상층에, 운영을 위한 사무 공간은 지하층에 모았다. 그중 지상층은 입구 앞 대기 공간부터 회복실, 진정실, 진료실까지 차례로 이어진다. 파스텔컬러와 기하학 도형을 활용한 로고로 아이덴티티를 집약한 입구를 지나면 대기 공간이 나타난다. 나무 조각을 엮은 3m 높이의 개구부를 통해 좌석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데, 벽 일부를 타일로 덮어 격자무늬를 만들고 캡슐 알약 같은 형태의 벽감에 짙은 초록색 소파를 삽입해 캐주얼하면서 아늑한 느낌을 연출했다. 리셉션 역시 정방형 타일로 마감했으며 펜던트 조명에 삼각, 사각 등 기본 도형을 매달아 장난스러운 인상을 준다. 맞은편의 자작나무 합판 벽 또한 직소 퍼즐처럼 도형을 짜 맞춰 유쾌하면서 따뜻하다. 이어지는 통로는 삼각형 천장과 세 면을 채우는 코랄색으로 터널 같은 느낌을 주어 공간에 리듬을 부여하고 진입감을 높였다. 한편 병원 가장 안쪽의 진료실은 식물을 풍부하게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진료실 한 면을 통창으로 마감하고 그 너머 작은 정원을 조성했는데 창 맞은편의 플랜트 월이 진료실에서 보여 푸른 경관으로 심신을 다독인다.

Clinic Type_ 소아 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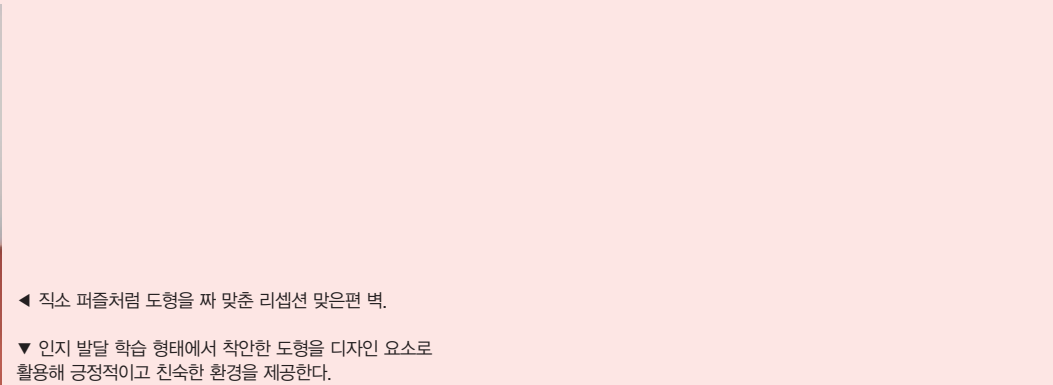
Design for Clinic_ 아이들이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지 발달 학습 형태에서 착안한 기하학 도형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했으며 파스텔컬러로 아늑하게 연출했다.



대기 공간의 캡슐 알약 같은 좌석이 캐주얼하면서 아늑하다.



대기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나무 아치가 실내 놀이터처럼 유쾌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 직소 퍼즐처럼 도형을 짜 맞춘 리셉션 맞은편 벽.

▼ 인지 발달 학습 형태에서 착안한 도형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긍정적이고 친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지하 사무 공간으로 향하는 계단에 기본 도형으로 포인트를 준 큼직한 펜던트 조명을 매달아 조형미를 드러냈다.



대기 공간과 진료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한 화장실.



회복실은 유리 벽을 둘러 개방적으로 구성하고 레몬색 쿠션을 두어 긴장감을 해소하게 했다.



회복실 앞 나무 아치 개구부가 진입감을 높인다.



아담한 공간에 무드등을 활용한 진정실.



코랄색 박공지붕 모양 통로가 공간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Focus on | 장난스러운 놀이터가 된 진료실

가장 긴장되는 공간인 진료실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코랄색을 주로 사용해 발랄하게 연출했으며 아이들이 진료용 의자에 앉았을 때 시선이 닿는 천장에 알록달록한 도형을 그려 넣었다. 또 통창 너머 플랜트 월과 더불어 진료실 내부의 불박이 수납장 위에 틈을 내고 식물을 심어 긍정적인 이미지와 생기를 심화했다.

